

복음과 상담  
제21권, 322-351

## 부자유친성정이 기독교 청소년의 자기표상과 하나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최승진\*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자유친성정이 자기표상과 하나님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 청소년의 부자유친성정, 자기표상과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차이를 규명하고, 하나님 이미지와 자기표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청소년(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남녀 856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유친성정이 자기표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부자유친성정과 관련된 변인인 “일체감”과 “헌신성”은 자기표상과 관련된 변인인 “사교성”, “호의성”, “유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자유친성정이 하나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부자유친성정과 관련된 변인인 “일체감”, “헌신성”은 하나님 이미지와 관련된 변인인 “소속감”, “승인감”, “통제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부자유친성정이 기독교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기표상에 실제적인 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중심단어:** 기독교 청소년, 부자유친성정, 자기표상, 하나님 이미지, 기독교 상담

• 논문 투고일: 2013년 10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12일

• 논문 수정일: 2013년 11월 3일

\*한국성서대학교

본 연구는 최승진(2013년 8월, 지도교수: 오윤선)의 한국성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임.

## I. 여는 글

현대 사회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도시화 그리고 산업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가치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생활환경이 편리해지고 화려해졌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나타나는 불건전한 풍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관계적 이미지를 왜곡하고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비인간화 상황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인간성 박탈의 문제와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자녀관계의 문제를 야기해 부모는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청소년은 부모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해 의사소통의 단절과 세대 간의 갈등이 팽배해지고 있다.<sup>1)</sup>

인간의 삶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주변의 중요한 사람(부모, 형제, 친구 등)과의 대인관계를 통하여 친밀하고 협동적인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불건전한 갈등을 일으키는 등의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타인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배우며, 변화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간다. 특히 가족은 서로 관련되어 영향을 주는 하나의 시스템이며, 가족 내의 다른 사람의 관계는 청소년 자신과 그들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sup>2)</sup> 이에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숙명적 관계이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지고지순의 사랑으로 이런 점에서 부자유친성정은 한국고유의 유교 문화적 전통의 아름다운 미덕(美德)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또한 한국 문화에서의 부모-

1) 김선아, “J. A. Comenius의 유아와 어머니 이해의 현대적 해석”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5), 1.

2) 오윤선, 『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예영 B&P, 2007), 157.

3) 허동규, “학생이 지각한 부자유친성정과 사제유친성정 및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2.

자녀 관계는 독립성과 개별성, 자율성 등을 추구하는 서구와 달리 부모-자녀 동일체적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기쁨과 슬픔이 서로의 것이 되는 일심동체(一心同體)적인 의식과 측은지정(미안함, 고마움, 측은함 등)과 같은 감정을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sup>4)</sup> 특히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의 시기에는 부모-자녀 관계가 사회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청소년기에 물질적, 정서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청소년 발달을 조력하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정상적, 긍정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건강한 자기 표상 형성이 이루어 지지 못한다. 이러한 자기표상은 어려서부터 초기 부모로부터 겪는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출생부터 유아,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까지 이어져 내려온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표상 형성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신의 내면에 저마다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 패턴은 일생을 통해 변하지 않고 작용하기도 하지만 새롭고 좋은 관계를 통해 변할 수 있다. 즉 부정적으로 형성된 틀을 바꾸기까지 그 상대가 한 없이 견뎌주고, 참아주고, 안아주는 충분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Ana-Maria Rizzuto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제시한다. Rizzuto는 부모와의 초기 대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자기 표상이 대상 표상을 형성하고,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sup>5)</sup> 이렇게 형성된 하나님 이미지가 따뜻하고 수용적인 하나님 이미지일 때 고난의 순간을 극복하게 하고, 위로와 인생의 의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긍정을 할 수 있는 내적 힘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4)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0), 271-278.

5) Ana-Maria Rizzuto, *The Birth of the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43-45.

많은 기독교 청소년들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부모의 모델을 경험하였거나 전통적인 교회의 신앙 공동체로부터 놀라는 경험 혹은 그들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분야의 연구들은 주로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서구의 이론들과 측정도구를 기준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평가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자유친성정이 기독교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기 표상에 미치는 영향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한국 문화 내의 부모-자녀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자유친성정이 하나님 이미지와 자기표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기독교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앙 성숙에 이르는 상담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 교회 교육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기독교 청소년의 부자유친성정, 자기표상과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차이를 규명하고, 둘째, 부자유친성정이 하나님 이미지와 자기표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기독교 청소년의 건강한 신앙, 인격형성 증진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대안 마련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 II. 펴는 글

### 1. 이론적 배경

#### 1) 부자유친성정의 이해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의 성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sup>6)</sup> 인간의

6) Urie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이영 역, 『인간발달생태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5), 45, 65.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부모-자녀간 동일체적 관계의 특성을 보인다.<sup>7)</sup> 이에 최상진은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부자유친성정’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였고, 이장주는 한국문화에서의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인 부자유친성정을 부모와 자녀 간에 자애(慈愛)와 효(孝)를 바탕으로 한 부모 자녀 간에 존재하는 친밀한 마음과 그것의 발현을 총괄하는 의미로 정의하였다.<sup>8)</sup> 또한 김미숙·김의철·박영신<sup>9)</sup>은 부자유친성정이 부모 자녀의 끈끈한 심정교류와 동일체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의 부모에게 있어 자녀의 존재는 자신의 미래이며 자신의 못다 이룬 꿈과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존재가 되고, 자녀를 위해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현상임을 밝히고 있다.<sup>10)</sup> 이처럼 한국에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문화적 특성은 서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서구의 부모자녀관계는 합리성과 평등성을 근간으로 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 우리의 부모-자녀 관계는 ‘자(慈)’ ‘효(孝)’라는 유교규범을 근간으로 감정의식 동일체적 관계라는 특성이 있다.<sup>11)</sup> 이처럼 한국인의 관계문화는 대인관계의 핵심이 되며, 이런 문화적 가치는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전달 및 재생산되어 간다.<sup>12)</sup> 특히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애착 형성은 유아기와 아동기를 성공적으로 보내도록 하고,

7) 최명선·문은미,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제16권 1호(2009): 166.

8) 이장주, “부자유친성정 정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24.

9) 김미숙·김의철·박영신, “유아 부모집단의 자녀가치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한국 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제16권 4호(2007): 57.

10) 김의철·박영신,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제12권 5호(2006): 17-18.

11) 박명석, 『동과 서』 (서울: 탐구, 1992), 61, 77;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278.

12) 김광웅·문수경, “부모-청소년 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Bronfenbrenner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 상담연구』 제13권 1호(2005): 72-73.

청소년기에 자아에 대한 탐색 및 분명한 자아관을 형성하도록 돕게 된다.<sup>13)</sup>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 문화적 관점을 고려한 연구들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져 한국에서 성장해 나가는 자녀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 2) 자기 표상의 이해

### (1) 표상의 일반적 개념과 성경적 개념

표상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표상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Representation' 이란 말 그대로 '다시 표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하나의 대상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측면을 일대일 대응방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표상"에 대해 우상우·장문선<sup>15)</sup>은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자신과 타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상(Image)을 말하는데 이러한 표상은 유아기 때의 주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한 바를 반영하여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기능을 한다. 따라서 표상은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식의 틀이다.<sup>16)</sup>

성경에서는 표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개역한글판에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 구절이 제시되어 있으며 개역개정판에서는 표상을 모형으로 사용하여 문자적으로 표상이라

13) Jeremy Holmes,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이경숙 역, 『존 볼비와 애착 이론』 (서울: 학지사, 2010), 183-185.

14) 우리가 사람을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사람의 실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심상(Image)이라든가 다듬어진 생각이나 언어화된 일화나 감정에 대한 기억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정모 외, 『인지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3), 280.

15) 우상우·장문선, "대상관계와 반사회적 성격특성의 관련성에서 방어유형의 매개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 『동서정신과학』 제12권 1호(2009): 31.

16) 김옥수,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에서 자기표상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11.

는 단어가 없다. 여기서 표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τυπος(튀포스)인데 τυπος(튀포스)의 주된 의미는 충격에 의해 만들어진 자국, 낙인된 것, 남겨진 표시 또는 표시에 의해 만들어진 형태나 윤곽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표상은 ‘전형(RSV, type)’ 또는 ‘모형(NIV, pattern)’, ‘예표’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처럼 성경은 수많은 예표들과 표상들로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즉 표상이라는 개념이 문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지만 표상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전인격적 형상을 뜻한다.<sup>17)</sup>

#### (2) 자기표상과 대상표상

자기표상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중요한 타자와의 대인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화된 자기에 대한 생각, 느낌, 감각기억, 의미를 말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집약한 기억체계로서 자기상(Self-Image)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존감, 정서, 대인관계를 비롯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sup>18)</sup> 이처럼 인간은 타인의 성격과 행동의 반응양식을 보며 타인에 대한 마음속의 이미지 즉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을 세우는데 타인들과 맺었던 중요한 관계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내면화되어 그 사람의 태도, 반응,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타인표상은 어머니, 아버지 또는 중요한 관계에 있는 타인에 대한 상으로서 실제 이들과의 대인관계 경험이 자기 및 타인 표상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기 자신과 타인들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 표상을 지니느냐에 따라 관계의 양상이 달라진다. 즉 자기 및 타인표상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반응

17) τυπος(튀포스)는 신약성경에 14회 나오며, 다음의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다. 요 20:25(자국); 행 7:43(형상); 행 7:44(우상의 형상); 행 23:25(아래, 본문-편지의 내용); 롬 5:14(표상); 롬 6:17(본); 고전 10:6(거울); 빌 3:17(본); 살전 1:7(본); 살후 3:9(본); 딤후 4:12(본); 딤후 2:7(본); 히 8:5(본); 벧전 5:3(본). 박현철·전요섭, “자기 애적 성격장애자의 하나님 표상 형성에 대한 기독교 상담 방안”, 기독교 학문연구소, 「신앙과 학문」 제14권 2호 (2009): 90.

18) 권석만·김지영,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1권 4호 (2002): 708.

을 예상하고 대인관계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여 대응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인지적 바탕의 역할을 함으로써 대인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19)</sup> 따라서 자녀와 부모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에게 정서적 흔적 기억의 과정을 거쳐 타인에 대한 이미지로 축적되고 타인의 반응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생성된다.

### 3) 하나님 이미지의 이해

#### (1)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접근

하나님 이미지를 성경 속에서 살펴볼 때 “Imago Dei”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다.<sup>20)</sup> 창세기 1장 26-27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שָׁמַיִם)을 따라 우리의 모양(צַמְוֹת)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שָׁמַיִם)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신다. 26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선언하신 말씀 가운데 쉘렘(שָׁמַיִם)은 ‘형상’으로, 데무트(צַמְוֹת)는 ‘모양’으로 번역된다. 그리고 27절에서 ‘형상’은 2번 반복된다. 창세기 5장 1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압축된 표현을 이용하여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되” 그리고 2절에서 덧붙이기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고 했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데무트(צַמְוֹת)이다.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

19) 김옥수,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에서 자기 표상의 매개효과”, 11-12.

20) 조윤옥, “대학 신입생의 배경변인에 하나님 이미지와 자기개념 명료성의 상관성 연구”,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제31권 11호 (2012): 314.

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고 하였다.<sup>21)</sup> 이에 하나님 형상 이해에 대해 Millard J. Erickson은 실재적 견해(Substantive View), 관계적 견해(Relational View), 기능적 견해(Function View) 세 가지 특징으로 구분하였고,<sup>22)</sup> 통합적 형상 이해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계시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를 형성해가야 하고, 둘째, 우리는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에만 완전한 인간성을 경험하게 되며, 셋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지배하고 통제하라는 실행은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이므로 인간은 피조물에 대한 이해와 통제를 획득하고 계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형상은 ‘의(義)와 진리(眞理)의 거룩함(엡 4:24, 골 3:10)으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인간에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며,<sup>23)</sup> 다섯째, 하나님의 형상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있다. 창세기 1장 27절과 5장 1-2절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형상의 보편성은 모든 인간의 존재가 존엄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약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sup>24)</sup>

또한 신약성경 두 곳에서 인간의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고 했다. 여기 형상에 해당하는 단어는 에이콘(εἰκών)이다. 그

21) 오윤선,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이해』 (서울: 예영 B&P, 2007), 31.

22)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1998), 498.

23)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서울: 베다니, 1994), 74.

24)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33.

리고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는 구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ὁμοίωσις) 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를 대면서 인간의 혀를 이용하여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비난한다. 이외에 신약성경에서 성도들이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와 관련된 구절과 하나님의 형상을 암시하고 있는 성경은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후서 3장 19절, 골로새서 3장 19절 등이다.<sup>25)</sup>

## (2)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기독교 종교를 가진 신자들의 삶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이며, 이들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보이거나 만져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실존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분,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며, 신실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등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이에 김난예<sup>27)</sup>는 하나님 이미지에 대해 개인 내면에서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모델로서 삶의 과정 속에서 타인들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 경험, 기억, 느낌 등의 총 집합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은 생애 초기의 부모와 관련되어 일어났던 관계 양상과 사건들이 개인의 하나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이 실재(實在)로 존재하고 살아 있으며 서로 상호 작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다. 이에 Rizzuto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오이디푸스 시기 이전과 오이디푸스 시기 동안에 경험하는 감정들, 관계들, 정신적 상황, 부모의

25) 오윤선,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이해』, 31-32.

26) 황혜리 · 김주현, “기독교대학 신입생의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및 하나님 이미지와 연관성 연구”,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 기독교 상담학회지』 제14권 13호(2007): 313.

27) 김난예, “기독교와 가톨릭 학생들의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침례신학대학교, 『복음과 실천』 제30권(2002): 277.

성격들, 아이가 각 부모와 형제들과 갖는 관계 등 온갖 종류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복합적 이미지(Image)라고 표현하였으며,<sup>28)</sup> Donald W. Winnicott은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의 개념을 이용하여 하나님 이미지를 설명하였고,<sup>29)</sup> William W. Meissner<sup>30)</sup>는 종교를 중간현상으로 설명하면서 Winnicott의 중간현상(Transitional Phenomena)에 대한 개념을 자신의 주장에 적용하였다. 하나님 이미지의 중요한 심리적 기능은 주요 대상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개인의 자기표상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 주는데 있다.<sup>31)</sup> 이처럼 인간이 삶에 대해 안전감(security)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sup>32)</sup>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 죄책감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과 소외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 상상하고 따뜻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28) Michael St. Clair, *Human Relationships and Experience of God: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New York: Paulist, 1994), 22.

29) Rizzuto는 하나님 이미지가 Winnicott이 말했던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이 강력하고 실감나는 환상적 삶을 부여받는 심리적 공간 안에서 아이가 창조해 낸 하나의 특별한 대상표상 유형이며 주관적 영역을 넘어서는 것도 아닌 바깥과 안의 경계선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지는 다른 중간대상과는 달리 실제 사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일차적 대상 이미지들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로서 다른 중간 대상들이 따르는 과정을 똑같이 거치지 않고 그 이미지적 특성이 더욱 재정교화 되어 오히려 그 의미가 강화된다. 또한 하나님은 전 생애를 통해 중간대상으로 남아 있으면서 삶 전체와 관련을 맺으며 변형되는 것이다. Rizzuto, *The Birth of the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200-201.

30) Meissner는 Winnicott과는 달리 중간 공간(Transitional Space)에서 일어나는 상징화, 창조성 그 밖의 활동인 중간현상의 기능에 대해 강조하지 않고 중간현상(Transitional Phenomena)들 속에서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집중하였다. 또한 Meissner는 종교를 설명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신앙, 하나님표상, 상징, 기도 중 신앙경험의 본질적인 측면 중 하나가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William W. Meissner, *Psychoanalysis and Religious Experi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4), 177.

31) Rizzuto, *The Birth of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88.

32) Lawrence J. Crabb, *The Marriage Builder*, 윤종석 역, 『결혼 건축가』(서울: 두란노서원, 2004), 46.

을 갖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심리학적 환원주의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시켜 주는 일에 대한 많은 이해와 시사점을 제공하고 성숙한 신앙에 관해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sup>33)</sup> 이처럼 하나님 이미지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따라서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이미지 형성은 최초의 만남인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이고, 부모-자녀관계의 방식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지며,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첨가, 수정 및 변형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하나님 이미지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각 개인이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탱에 주고, 심리적 갈등을 막을 뿐 아니라 긍정적 자아상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본다.<sup>34)</sup>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가시적인 영역과 비가시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 이시고, 본질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리학적 범주로 표상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을 심리학적 범주로 연구한 Rizzuto, Winnicott 등이 영적인 개념을 간과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sup>35)</sup>

## 2. 연구방법

### 1) 연구의 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부자유친성정이 기독교 청소년들의 자기표상과 하나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기독교 상담학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연구의 방법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집대상을 서울 및

33) 황혜리 · 류수정,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우울관계의 관계”,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1권(2006): 193-194.

34) 황혜리 · 김주현, “기독교대학 신입생의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및 하나님 이미지와 연관성 연구”, 312-313.

35) 전요섭 · 배은주, “청소년의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5권(2005): 325-327.

경기 근교에 거주하는 기독교계 학교와 교회 학교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되 지역을 고려하고 비율을 안배하여 확률표본 추출방식에 의해 무작위 표집 방식을 적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월1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전체 표집 인원은 서울 및 경기 지역 기독교계 학교와 20여개 교회학교 중, 고등학생 892명이었으나 손상된 3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56부를 분석하였다.

## 2) 조사도구의 구성과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부자유친성정 척도는 정영숙<sup>36)</sup>, 최상진<sup>37)</sup>의 연구에서 한국 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였고, 이장주<sup>38)</sup>의 설문측정항목에서 신뢰도 .880~.890, 타당도 .617~.902로 검정된 일체감(7문항), 헌신성(6문항) 등 총 13개 문항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각 구성요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한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이 일체감 .850, 헌신성 .919로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타당도는 일체감이 .729~.806, 헌신성은 .639~.771이었다. 그리고 자기표상 척도는 권석만과 김지영<sup>39)</sup>의 연구를 통해서 신뢰도 .610~.780와 타당도 .600~.860가 검정된 사교성(6문항), 호의성(6문항), 유능성(5문항) 등 총 17개 문항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각 구성요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한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이 호의성 .927, 사교성 .915, 유능성 .860로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타당도는 호의성이 .721~.873, 사교성이 .714~.843, 유

36) 정영숙,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37) 최상진,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7권 (1994): 213-237; 최상진, “한국 문화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지난 20여 년간의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얻은 문화심리학적 경험”,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6권(2000): 25-40.

38) 이장주,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39) 권석만·김지영,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705-726.

능성이 .645~.826이었다. 하나님 이미지는 Lawrence<sup>40)</sup>이 연구하여 개발한 이미지 검사(God Image Assessment, GIA)를 번안하여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김난예<sup>41)</sup>의 연구를 통해서 신뢰도 .860~.940와 타당도 .710~.860가 검정된 소속감(10문항), 승인감(10문항), 통제감(10문항) 등 총 30문항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각 구성요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한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이 소속감 .931, 승인감 .831, 통제감 .935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타당도는 소속감이 .617~.823, 승인감이 .640~.826, 통제감이 .612~.808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척도들은 모두 자기보고식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 3) 자료분석의 기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20.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적용된 주요 통계방법은 기본적으로 빈도, 평균, F검정, 신뢰도 · 타당도, 그리고 일반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 선정된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들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유의 수준은 5% 이상으로 하였다.

## 3. 연구의 결과 분석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40) Richard T. Lawrence, "Measuring the Image of God: the God Image Inventory and the God Image Scal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no. 2 (1997): 214-226.

41) 김난예, "기독교와 가톨릭 학생들의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연구", 275-305.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가 50.8%(435명), 여자가 49.2%(421명)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거주지는 서울이 68.3%(585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30.37%(260명)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부모 종교는 아버지의 경우 기독교가 70.21%(601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어머니의 종교 분포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85.5%(732명)의 분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청소년들의 신앙 연수는 10년 이상이 63.2%(541명)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유아기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 종교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월 평균 예배 횟수는 4~5회가 가장 많은 분포인 46.85%(401명)를 보였으며, 2~3회가 12.5%(107명)로 나타났으며, 8회 이상도 25.47%(218명)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응답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응답 청소년들은 부모의 종교적 영향을 받아 유아기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싹을 틔웠으며, 대부분 주 1회 이상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N=856)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435	50.82	거주지	서울	585	68.34
	여성	421	49.18		경기	260	30.37
학력_모	고졸	354	41.36		기타	11	1.29
	대졸	357	41.71	학력_부	고졸	263	30.72
	대학원 졸	53	6.19		대졸	409	47.78
	기타	92	10.75		대학원 졸	90	10.51
			기타		94	10.98	
학년	중학교1	189	22.08	신앙 연수	1년 미만	51	5.96
	중학교2	111	12.97		1-5년	120	14.02
	중학교3	135	15.77		6-10년	144	16.82
	고등학교1	190	22.20		11-15년	277	32.36
	고등학교2	119	13.90		16-19년	264	30.84
	고등학교3	112	13.08				

최승진 · 부자유친성정이 기독교 청소년의 자기표상과 하나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 337

종교_부	기독교	603	70.21	예배 횟수	1번 이하	50	5.84
	천주교	11	1.29		2-3회	107	12.50
	불교	24	2.80		4-5회	401	46.85
	기타	218	25.47		6-7회	80	9.35
					8회 이상	218	25.47
종교_모	기독교	732	85.51	구원 확신	있다.	621	72.55
	천주교	4	0.47		없다.	14	1.64
	불교	15	1.75		잘 모르겠다.	221	25.82
	기타	105	12.27				

2) 부자유친성정, 자기표상,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분석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부자유친성정 및 자기표상,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부자유친성정에 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년(F값=3.57, p<0.01)과 거주지 (F값=6.76, p<0.01), 구원 확신(F값=22.96, p<0.01)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성별, 부모의 종교와 학력, 신앙연수, 예배횟수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변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N=856)

항목	부자유친성정		자기표상		하나님이미지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성별	남자	3.84	2.84	3.62	0.17	3.77	0.64
	여자	3.92		3.6		3.8	
학년	중학1	4.04	3.57**	3.79	3.67**	3.97	4.60**
	중학2	3.84		3.5		3.78	
	중학3	3.84		3.56		3.66	
	고등1	3.81		3.55		3.74	
	고등2	3.77		3.6		3.78	
	고등3	3.95		3.56		3.73	
거주지	서울	3.94	6.76**	3.69	14.73**	3.84	8.63**
	경기	3.75		3.42		3.66	
	기타	4.06		3.62		4.11	
종교_부	기독교	3.91	1.67	3.64	2.55*	3.82	3.64**
	천주교	3.85		3.84		3.84	
	불교	3.94		3.34		3.5	
	기타	3.8		3.53		3.72	

## 338 / 복음과 상담 • 제21권

학력_부	고졸	3.87	0.61	3.67	5.44**	3.74	3.71*
	대졸	3.9		3.63		3.82	
	대학원졸	3.92		3.61		3.92	
	기타	3.8		3.34		3.65	
학력_모	고졸	3.84	1.73	3.65	7.52**	3.77	1.76
	대졸	3.93		3.65		3.83	
	대학원졸	3.98		3.55		3.82	
	기타	3.8		3.29		3.67	
신앙연수	1년미만	3.83	0.39	3.76	2.06	3.42	8.56**
	1-5년	3.89		3.61		3.65	
	6-10년	3.84		3.51		3.74	
	11-15년	3.92		3.66		3.9	
	16-19년	3.87		3.57		3.83	
예배횟수	1번이하	3.94	0.89	3.48	2.3	3.5	11.50**
	2-3회	3.79		3.54		3.66	
	4-5회	3.87		3.57		3.73	
	6-7회	3.91		3.66		3.84	
	8회이상	3.93		3.71		4	
구원확신	있다	3.94	22.96**	3.69	19.08**	3.97	137.57**
	없다	2.81		2.99		2.61	
	잘모름	3.78		3.42		3.34	

\* $p<0.05$  \*\* $p<0.0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표상의 경우 학년( $F_{값}=3.67, p<0.01$ )과 거주지( $F_{값}=14.73, p<0.01$ ), 아버지 종교( $F_{값}=2.55, p<0.05$ ), 아버지 학력( $F_{값}=5.44, p<0.01$ ), 어머니 학력( $F_{값}=7.52, p<0.01$ )과 구원확신( $F_{값}=19.08, p<0.01$ )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성별, 어머니 종교, 신앙연수, 예배횟수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표 2〉에서와 같이 응답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하나님 이미지 차이는 학년( $F_{값}=5.44, p<0.01$ )과 거주지( $F_{값}=5.44, p<0.01$ ), 아버지의 종교( $F_{값}=5.44, p<0.01$ )와 학력( $F_{값}=5.44, p<0.01$ ), 응답 청소년의 신앙연수( $F_{값}=5.44, p<0.01$ ), 예배 횟수( $F_{값}=5.44, p<0.01$ ), 그리고 구원 확신( $F_{값}=5.44, p<0.01$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성별, 어머니 종교, 어머니 학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기독교 청소년의 자기표상에 미치는 영향력

## (1) 자기표상의 사교성에 미치는 영향력

부자유친성정이 자기표상의 사교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3>과 같이 사교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서 통제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으며( $F=12.721, p<0.01, R^2=.070$ ), 통제변수와 부자유친성정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2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F=24.935, p<0.01, R^2=.171$ ). 또한 모형2에서 종속변수인 사교성에 부자유친성정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일체감( $\beta=0.183, t=4.437$ )과 헌신성( $\beta=0.172, t=4.17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자유친성정이 자기표상의 사교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체감과 헌신성이 사교성에 정(+)<sup>의</sup>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자유친성정이 자기표상의 사교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사교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 변수		자기표상 사교성			
		모형1		모형2	
		표준화 B	t-value	표준화 B	t-value
통제변수	학 년	-.111	-3.293**	-.084	-2.625**
	거 주 지	-.167	-4.976**	-.133	-4.182**
	신앙년수	-.032	-.907	-.037	-1.129
	출석횟수	.076	2.192*	.072	2.193*
	구원확신	-.129	-3.809**	-.094	-2.919**
부자유친성정	일체감			.183	4.437**
	헌신성			.172	4.171**
R <sup>2</sup>		.070		.171	
Adjust R <sup>2</sup>		.064		.164	
F-값		12.721**		24.935**	

\* $P \leq 0.05$ , \*\* $P \leq 0.01$

(2) 자기표상의 호의성에 미치는 영향력

부자유친성정이 자기표상의 호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4>와 같이 호의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서 통제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으며( $F=8.405, p<0.01, R^2=.047$ ), 통제변수와 부자유친성정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2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F=16.496, p<0.01, R^2=.120$ ). 또한 모형2에서 종속변수인 호의성에 부자유친성정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일체감( $\beta=.273, t=6.414$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헌신성( $\beta=.001, t=.014$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자유친성정이 자기표상의 호의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체감이 호의성에 정(+)  
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반면에 헌신성은 호의성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자유친성정이 자기표상의 호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호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 변수		자기표상_사교성			
		모형 1		모형 2	
		표준화 B	t-value	표준화 B	t-value
통제변수	학 년	-.026	-.767	-.003	-.094
	거 주 지	-.097	-2.872**	-.079	-2.391*
	신앙년수	-.021	-.603	-.022	-.636
	출석횟수	.082	2.340*	.083	2.469*
	구원확신	-.155	-4.503**	-.122	-3.679**
부자유친성정	일체감			.273	6.414**
	헌신성			.001	.014
R <sup>2</sup>		.047		.120	
Adjust R <sup>2</sup>		.042		.113	
F-값		8.405**		16.498**	

\* $P \leq 0.05$ , \*\* $P \leq 0.01$

## (3) 자기표상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부자유친성정이 자기표상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5>와 같이 유능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서 통제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으며( $F=7.656, p<0.01, R^2=0.043$ ), 통제변수와 부자유친성정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2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F=25.769, p<0.01, R^2=0.175$ ). 또한 모형2에서 종속변수인 유능성에 부자유친성정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일체감( $\beta=0.364, t=8.838$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헌신성( $\beta=0.007, t=0.17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자유친성정이 자기표상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체감이 유능성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헌신성은 유능성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자유친성정이 자기표상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 변수		자기표상_사교성			
		모형 1		모형 2	
		표준화 B	t-value	표준화 B	t-value
통제변수	학 년	-.073	-2.136*	-.042	-1.313
	거 주 지	-.115	-3.398**	-.090	-2.818**
	신앙년수	-.037	-1.048	-.038	-1.147
	출석횟수	.023	.652	.024	.750
	구원확신	-.142	-4.127**	-.099	-3.060**
부자유친성정	일체감			.364	8.838**
	헌신성			.007	.171
R <sup>2</sup>		.043		.175	
Adjust R <sup>2</sup>		.037		.169	
F-값		7.656**		25.769**	

\* $P \leq 0.05$ , \*\* $P \leq 0.01$

## 4) 하나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

## (1) 하나님 이미지의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력

부자유친성정이 하나님 이미지의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 변수		하나님 이미지 소속감			
		모형1		모형2	
		표준화 B	t-value	표준화 B	t-value
통제변수	학 년	-.130	-4.142**	-.098	-3.413**
	거 주 지	-.074	-2.358*	-.035	-1.230
	신앙년수	.041	1.241	.034	1.157
	출석횟수	.125	3.863**	.121	4.101**
	구원확신	-.349	-10.995**	-.307	-10.557**
부자유친 성정	일체감			.234	6.304**
	헌신성			.187	5.027**
R <sup>2</sup>		.185		.327	
Adjust R <sup>2</sup>		.180		.22	
F-값		38.616**		58.991**	

\*P&lt;0.05, \*\*P&lt;0.0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자유친성정이 하나님 이미지의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감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서 통제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으며( $F=38.616, p<0.01, R^2=0.185$ ), 통제변수와 부자유친성정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2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F=58.991, p<0.01, R^2=0.327$ ). 또한 모형2에서 종속변수인 소속감에 부자유친성정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일체감( $\beta=0.234, t=6.304$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마찬가지로 헌신성( $\beta=0.187, t=5.027$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자유친성정이 하나님 이미지의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체감과 헌신성이 소속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하나님 이미지의 승인감에 미치는 영향력

부자유친성정이 하나님 이미지의 승인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인감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서 통제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으며( $F=25.145$ ,  $p<0.01$ ,  $R^2=0.129$ ), 통제변수와 부자유친성정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2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F=30.510$ ,  $p<0.01$ ,  $R^2=0.201$ ). 또한 모형2에서 종속변수인 승인감에 부자유친성정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일체감( $\beta=-0.171$ ,  $t=-4.229$ )과 헌신성( $\beta=-0.129$ ,  $t=-3.175$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자유친성정이 하나님 이미지의 승인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체감과 헌신성이 승인감에 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자유친성정이 하나님 이미지의 승인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승인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 변수		하나님 이미지 승인감			
		모형 1		모형 2	
		표준화 B	t-value	표준화 B	t-value
통제변수	학 년	.104	3.188**	.081	2.577*
	거 주 지	.029	.884	.001	.045
	신앙년수	-.149	-4.421**	-.145	-4.478**
	출석횟수	-.024	-.724	-.021	-.665
	구원확신	.289	8.799**	.259	8.163**
부자유친성정	일체감			-.171	-4.229**
	헌신성			-.129	-3.175**
R <sup>2</sup>		.129		.201	
Adjust R <sup>2</sup>		.124		.195	
F-값		25.145**		30.510**	

\* $P \leq 0.05$ , \*\* $P \leq 0.01$

## (3) 하나님 이미지의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력

부자유친성정이 하나님 이미지의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8>과 같이 통제감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서 통제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으며( $F=46.469, p<0.01, R^2=0.215$ ), 통제변수와 부자유친성정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2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F=62.937, p<0.01, R^2=0.342$ ). 또한 모형2에서 종속변수인 통제감에 부자유친성정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일체감( $\beta=0.215, t=5.84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헌신성( $\beta=0.184, t=4.994$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자유친성정이 하나님 이미지의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체감과 헌신성이 통제감에 정(+)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자유친성정이 하나님 이미지의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 변수		하나님 이미지_통제감			
		모형 1		모형 2	
		표준화 B	t-value	표준화 B	t-value
통제변수	학 년	-.043	-1,389	-.012	-.439
	거 주 지	-.131	-4,262**	-.094	-3,319**
	신앙년수	.084	2,616**	.078	2,648**
	출석횟수	.129	4,076**	.125	4,299**
	구원확신	-.371	-11,893**	-.331	-11,511**
부자유친성정	일체감			.215	5,841**
	헌신성			.184	4,994**
R <sup>2</sup>		0,215		0,342	
Adjust R <sup>2</sup>		0,210		0,336	
F-값		46,469**		62,937**	

\*P&lt;0.05, \*\*P&lt;0.01

### III. 닫는 글

#### 1. 연구의 논의

부자유친성정이 기독교 청소년의 자기표상과 하나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에 대해 조사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유친성정은 자기표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자유친성정의 일체감과 헌신성은 자기표상과 전체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명선 · 문은미<sup>42)</sup>, 박수영 · 이재연<sup>43)</sup>, 최인재<sup>44)</sup>, 이운기<sup>45)</sup>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부자유친성정과 자기표상간의 관계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부모와의 혈육지정의 심정적 결속과 동일체적 관계를 나타내는 부자유친성정이 기독교 청소년들의 자기표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형성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기표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부자유친성정은 하나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자유친성정의 일체감과 헌신성은 하나님 이미지와 전체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난예<sup>46)</sup>, 이영희 · 박준하<sup>47)</sup>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부자유친성정

- 
- 42) 최명선 · 문은미,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165-172.  
 43) 박수영,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 분화 및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제 26권 6호(2005): 197, 199.  
 44) 최인재,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자아 분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4), 73.  
 45) 이운기, “자아분화와 우리 의식을 매개로 한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가 대인 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5), 68-69.  
 46) 김난예, “기독교와 카톨릭 학생들의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연구”, 277-278.  
 47) 이영희 · 박준하, “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 21권 (2011): 205.

과 하나님 이미지간의 관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는 부모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인식되며, 기독교 청소년들의 자기표상과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부모와의 관계경험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 2. 결론 및 제언

한국문화에서의 부모-자녀관계는 서구와 달리 부모-자녀 간의 일심동체적인 의식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그 문화에 바탕을 둔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과 갈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많은 연구가 실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서구의 인본주의 심리학 이론에서 개발된 측정 변인들이 그대로 적용되기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심리적 특징과 행동 기제에 대한 관심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보편적인 심리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변량 부분을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관계주의 문화에 기반을 둔 부자유친성정을 통한 부모-자녀 관계와 기독교 청소년들의 자기표상, 그리고 하나님 이미지의 영향력 검증의 본 연구 결과는 기독교 청소년을 비롯한 자녀들을 위한 올바른 부모 역할과 건강한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초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와 상담현장에서는 하나님 이미지가 건강한 신앙 성숙을 이루게 하는 초석임을 알게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지지를 느끼게 하며 이를 하나님과 연계시켜 가정에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상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이미지의 변형 과정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과 함께 정신적이며 심리적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상담자의 전문성 있는 상담을 통하여 하나님 이미지의 변형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야하며 전문성 있는 인적 자원 확보가 개교회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공동 상담을 제공할 수도 있다. 아울러 기독교 청소년들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따른 공통적인 추구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성의 확립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기표상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에서는 ‘충분히 좋은’ 부모로서의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이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지역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계 학교와 교회의 만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 지역적, 종교적 표본 범위를 확대한다면 좀 더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 모형을 채택하여 신앙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친구 또는 주변인과의 관계, 교단 또는 교파적 특성, 지역교회의 특성, 목회자의 영향력 등을 객관화해서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연관성과 매개모형의 적합여부의 심층적인 확인을 위해서 다차원적인 측정도구의 사용을 제안하며, 각각의 변수들을 측정하는데 있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보완한다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독교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격체를 형성하고, 교회와 상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실증적인 상담접근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보완 연구가 필요하겠다.

## 【 참고문헌 】

- 권석만 · 김지영.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1권 4호(2002): 705-726.
- 김광웅 · 문수경. “부모-청소년 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Bronfenbrenner 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 상담연구」 제13권 1호(2005): 71-84.
- 김난예. “기독교와 가톨릭 학생들의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침례신학대학교. 「복음과 실천」 제30권(2002): 275-305.
- 김미숙 · 김의철 · 박영신. “유아 부모집단의 자녀가치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제16권 4호(2007): 57-74.
- 김선아. “J. A. Comenius의 유아와 어머니 이해의 현대적 해석”.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5.
- 김옥수.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에서 자기표상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 김의철 · 박영신.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제12권 5호(2006): 1-28.
- 박명석. 『동과 서』. 서울: 탐구, 2003.
- 박수영.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 분화 및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한국 아동학회. 「아동학회지」 제26권 6호(2005): 189-200.
- 박현철 · 전요섭.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하나님 표상 형성에 대한 기독교 상담 방안”. 기독교학문연구소. 「신앙과 학문」 제14권 2호 (2009): 81-108.
- 오윤선. 『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예영 B&P, 2007.
- 오윤선.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이해』. 서울: 예영 B&P, 2007.
- 우상우 · 장문선. “대상관계와 반사회적 성격특성의 관련성에서 방어유형의 매개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 「동서정신과학」 제12권 1호(2009): 29-44.
- 이영희 · 박준하. “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1권 (2011): 189-210.

- 이운기. “자아분화와 우리 의식을 매개로 한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가 대인 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5.
- 이장주.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 이정모 외. 『인지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2.
- 전요섭 · 배은주. “청소년의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5권(2005): 321-346.
- 정영숙.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서울: 베다니, 1994.
- 조운옥. “대학 신입생의 배경변인에 하나님 이미지와 자기개념 명료성의 상관성 연구”.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제31권 11호(2012): 309-342
- 최명선 · 문은미.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 연구」 제16권 1호(2009): 165-177.
- 최상진.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7(1994):213-237.
-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0.
- 최상진. “한국 문화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지난 20여 년간의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얻은 문화심리학적 경험”.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6권(2000): 25-40.
- 최인재.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4.
- 허동규. “학생이 지각한 부자유친성정과 사제유친성정 및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 황혜리 · 김주현. “기독교대학 신입생의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및 하나님 이미지와 연관성 연구”.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 기독교 상담학회지」 제14권 13호(2007): 311-336.
- 황혜리 · 류수정.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우울관계의 관계”.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 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1권(2006): 191-212.

350 / 복음과 상담 • 제21권

- Bronfenbrenner, Urie.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이영 역. 『인간발달생태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5.
- Crabb, Lawrence. J. *The Marriage Builder*. 윤종석 역. 『결혼 건축가』. 서울: 두란노서원, 2004.
- Erickson, Millard J.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1998.
- Holmes, Jeremy.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이경숙 역. 『존 볼비와 애착이론』. 서울: 학지사, 2010.
- Hoekema, Anthony A.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Lawrence, R. T. "Measuring the Image of God: the God Image Inventory and the God Image Scal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no. 2(1997): 214-226.
- Meissner, William W. *Psychoanalysis and Religious Experi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4.
- Rizzuto, Ana-Maria. *The Birth of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 St. Clair, Michael. *Human Relationships and Experience of God: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New York: Paulist, 1994.

## 【Abstract】

##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Bu-Ja-Yu-Chin-Sung-Cheong) on Self-Representation and Image of God(God Representation)of Christian Adolescents

**Seung-Jin Choi**

Korean Bibl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 study is to examine what effects is exerted on self representation and God's image by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bu-ja-yu-chin-sung-cheong) as perceived by Christian adolescents. To achieve such purposes of the study, recognition on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of Christian adolescents, self representation along with God image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and their influence on God's image and self representation. The research was performed for 856 both male and female Christian adolescents (from 1st grade of junior high to 3rd grade of high schoo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 results of hypotheses for the influence of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on self representation, it was found that "sense of unity" and "dedication" as variables related to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ociability", "benevolence" and "competence" as variables related to self representation. Second,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 results of hypotheses for the influence of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on God image, it was found that "sense of unity" and "dedication" as variables related to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ense of belonging", "sense of approval" and "sense of control" as variables related to God image. Through the study results discussed above, it was verified that the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has an effect on the practical aspects of healthy self-representation of the Christian adolescents as well as positive image of God.

**Key words:** Christian adolescent, parent-adolescent affective(bu-ja-yu-chin-sung-cheong), self representation, image of God(God representation), Christian counseling.